

名前：

저도 인터넷으로 뉴스를 볼 때가 많
습니다. 비용도 안 들고 편하기 때문입
니다. 하지만 앞으로는 꼭 신문과 잡지
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먼저, 신문이나 잡지, 뉴스 등은 매스
컴(언론)으로, 사람들에게 세상을 보여
주는 창문과 같은 것입니다. 때문에 매
스컴은 이 세상의 여러가지 정보를 담
고 있습니다. 사람들은 이러한 매스컴을
통해 정보를 얻기 때문에 그런 수단이
적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
또한, 아무리 인터넷을 쓰는 사람이
많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쓰지 않는 사
랑도 많습니다.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
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컴퓨
터로 보는 것보다 직접 보는 편이 더
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. 이러한 정보격
차가 심해지면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할
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
특히 신문의 경우, 어떤 나라 만에서

큰 영향력을 행사하며, 역사도 깊고 정
복나 기업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.
그러한 신문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많
을 것이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신문기사
를 인터넷에서밖에 볼 수 없게 된다면
신문사의 영향력은 고용된 직원들의 수
도 점점 줄어든 것이라곤 생각합니다.
신문이나 잡지 등은 근대에 이르러서
부터 꼭 이어져 온 역사가 있습니다.
모양은 변해와서 인터넷 신문도 등장했
지만 사람들에게 새소식을 알리고 싶다
는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 다. 만약 신
문 등 종이 인쇄물이 사라진다면 '읽
다, 쓰다, 만나다'와 같은 말도 사라질
지도 모릅니다. 때문에 '단순한 편지함'
때문에 '이제 신문·잡지는 필요 없어'
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. 지금의
우리들도 신문이나 잡지 속에 함께 숨
쉬고 있기 때문입니다.